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29	06. 05	06. 12
대 표 기 도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성 경 봉 독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5월 축복인사 - 목표를 정하신 성도님을 격려합니다(성도 간에)
아하자(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자신에게)

1. 봉사자 임명 - 조영재 형제가 예배반주로 봉사해주실 것입니다.
2. 26일(금)은 “주 승천일(Christi Himmelfahrt)”입니다.
3. 귀국 - 장준화 형제(23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4. 마스크 착용 -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입니다(5월부터).
5. 코로나 대응 -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이세현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69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복자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단 1 : 8 - 10(구p1231) 김복자 권사
 (Daniel 1:8-10)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성도, 또 다른 세상!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강희수 성도

† 기도제목

1.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귀국하는 장준화 형제 앞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 및 지방선거(6월1일)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찬송가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의 작사가 Joseph Scriven은 1819년 Ireland의 수도 Dublin에서 태어나 1886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명문 Trinity College Dublin 출신으로 약혼녀와 행복한 앞날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 전말 밤 약혼녀가 강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Canada로 떠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혼녀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신뢰했던 그는 이 모든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독신으로 살라는 주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캐나다 동남부에 위치한 Ontario 주의 Porthope에서는 그에 대해 '산상수훈대로 산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성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마6:33)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관심을 세상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혼한 사람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그분을 위한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Jon Henry Newman(영국 추기경) -